

王泰林的肝病論治에 대한 연구

은석민*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王泰林肝病論治研究

殷哲攻*

又石大學校 韓醫科大學

清代名醫王泰林爲治療肝病之大家，常以肝氣肝風肝火立論，注重脈証，強調了外感六淫內傷情志及痰飲瘀血均可致肝病。他吸收[內經]和仲景以及歷代醫家的肝病論治理論，還特別深受葉天士影響而指出了對肝病的三綱辨治體系。王泰林在此基礎上還創立了疏肝理氣法，疏肝通絡法，緩肝法，泄肝和胃法，熄風和陽法，熄風潛陽法，培土寧風法，清肝法，溫肝法等諸多治法，爲近代臨床醫生所常用。

Key Words : 韓醫學, 王泰林, 肝病, 清代醫學, 三綱辨治體系

I. 서론

王泰林(1798-1862)은 중국 清代의 저명한가로서 江蘇 無錫人으로 字가 旭高이고 晚號를 退思居士라 하였다. 저작으로 『西溪書屋夜話錄』, 『環溪草堂醫案』, 『王旭高臨證醫案』, 『醫學芻言』 등이 있으며¹⁾, 그는 특히 肝病의 論治에 있어 뛰어난 업적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태림은 『內經』, 『難經』을 비롯한 역대의 학술 사상을 기초로 그의 대표적인 저작인 『西溪書屋夜話錄』에서 肝病의 증치에 대해 “肝氣, 肝風, 肝火, 三者同出異名”, “內風多從火出”의 견해를 제기하였으며, 아울러 “肝病最難而治法最廣”이라는 관점 하에 肝病에 대한 三綱의 論治 및 다양한 治法들을 창안하였다. 그 治法은 주로 五臟 사이의 相生相克의 관계를 통해 肝病의 治療를 논하는 것으로서, 肝을 직접적으로 또

는 간접적으로 치료하며 아울러 標本虛實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整體적인 治療를 행하는 것이었다.

한편 肝病에 대한 왕태림의 辨證論治는 특히 葉天士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왕태림은 葉天士의 영향으로 肝病의 증치에 있어 肝氣, 肝風, 肝火의 분류와 함께 그에 기반한 다양한 治法들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에 왕태림의 肝病論治의 구체적 내용 및 그 학술적 연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肝病의 病因病機에 대한 기술

1) 肝病의 病因

肝病의 病因으로는 內傷이 비교적 많지만 外感六淫의 경우도 또한 적다고 볼 수 없다. 왕태림의 『環溪草堂醫案』 및 『王旭高臨證醫案』에는 六淫에 의한 肝病에 대해 많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한 咳嗽案의 경우 “一月以來, 咳嗽上引頭痛”한 병증에

* 교신저자 : 은석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우석대학교 한의과대학 063-290-1560
E-mail : eskmin@mail.woosuk.ac.kr

1) 왕태림의 저작들 가운데 『退思集類方歌注』, 『醫方證治匯編歌括』, 『醫方歌括』, 『薛氏濕熱論歌訣』, 『醫方歌訣』은 후대에 그의 대표작인 『西溪書屋夜話錄』과 함께 『王旭高醫書六種』으로 승계되었다.

대해 병인을 “風邪襲肺，肺氣失宣，……震動肝膽之陽” 하여 肝陽上亢에 이른 것이라 하였고, 또 한 中風案의 경우를 보면 “口角流涎，舌蹇而澁，右肢麻木” 한 병증에 대해 “風中廉泉，痰阻舌本” 즉 風이 痰涎과 함께 筋脈에 阻滯되어 있는 것이라 하였다.

火의 性은 炎上하는 것이므로 火熱의 邪에 의해 肝의 疏泄기능이 쉽게 太過할 수 있으며, 심지어는 肝火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왕태림은 이 肝火가 動하는 것에 대해 “肝火燔灼，能游行于三焦，一身上下內外皆能爲病，難以枚舉” 라 하였다. 예를 들어 한 失血案의 경우 “血色紫而有塊” 한 경우에 대해 “屬肝火乘胃，痰凝上犯也” 라 하였고, “牙齦痒痛出血，而發牙疳，舌紅碎裂，頭眩心煩，營陰內虧” 한 경우에 대해 “肝經鬱火，乘犯陽明” 에 의한 것이라 하였다.

이처럼 風, 火의 邪에 의한 肝病 외에 寒, 暑, 燥, 濕의 邪가 모두 肝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왕태림이 六淫의 邪에 의한 肝病을 설명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風, 暑, 燥의 邪氣에 의한 肝病은 肝風을 위주로 하고, 둘째 火熱의 邪는 肝火로 발할 수 있고 또한 肝風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셋째 寒, 濕의 邪는 肝氣의 凝滯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한편 사람의 七情의 변화 특히 怒, 悲, 驚 등의 감정 변화 역시 肝의 疏泄기능 및 藏血기능에 영향을 주어 肝病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왕태림은 이와 같은 內傷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였다. 먼저 怒함으로 인한 肝病에 대해 살펴보면, 일찍이 『素問舉痛論』에서 “怒則氣逆，甚則嘔血及殮泄” 이라 하고 또한 『素問生氣通天論』에서도 “大怒則形氣絕，而血菀于上，使人薄厥” 이라 하였듯이 왕태림은 怒의 감정이 肝氣의 逆亂을 통한 肝病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왕태림은 怒의 감정이 또한 肝風과 肝火를 動하게 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는 어떤 病者의 “不時頭昏脚軟” 한 증상에 대해 “營血內虧，不能涵木，加以惱怒，肝風暗動” 이라 하고 또한 “久咳帶血，今又音啞咽痛” 한 증상에 대해 “此怒動肝火，肺失清肅，所謂金破不鳴” 이라 하면서 怒의 감정이 肝風을 動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悲哀의 감정이 과도한 경우 또한 심하면 그 鬱結됨이 火로 化할 수 있는데, 왕태림은 이에 대해 결국 相火가 妄動하여 肝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았다. 예를 들어 遺精에 대한 그의 한 의안을 보면, 病자가 자식을 잃은 후 悲哀의 감정이 쌓이면서 肝火가 偏盛함으로 인해 소변이 淋濁하다가 점차 遺精에까지 이르고 또한 氣上攻胸，心神狂亂，齧血目青의 증상까지 나타나는 것에 대해 “經云，腎主閉藏，肝司疏泄。二藏皆有相火，而其系上屬於心，心爲君火，君不制相，相火妄動，雖不交合，精亦暗流而走泄矣。” 라 하여 悲哀의 감정으로

인해 君火가 相火를 제어하는 기능을 잃게 된 경우로 설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왕태림은 悲哀의 과도함이 직접적으로 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았으며, 즉 ‘肝藏魂’의 기능이 약해짐을 말한 것이다. 『靈樞本神』에서는 “肝悲哀動中則傷魂，魂傷則狂妄不精” 이라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치로 그는 한 病者가 “初起病發如狂，今則心跳少寐，頭眩口乾，略見咳嗽” 한 증상을 보이는 것에 대해 그 病機가 “喪弟悲哀太過，肝陽升動無制” 한 경우로 설명하였다.

驚의 경우도 肝病의 주된 병인 중 하나가 되는데, 『素問舉痛論』에서 “驚則氣亂” 이라 하였듯이 왕태림은 갑작스런 驚, 恐의 감정변화가 肝陽의 동요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神志異常’에 대한 한 의안의 경우 “寡居十載，愁傷苦心，牙齦出血，有時若癎，其病已久。茲一月前，猝遭驚恐，遂神糊語亂，嘔吐紫血，腹脹不食，兩脈模糊，難以捉摸”의 증상에 대해 “此乃驚動肝陽，神魂擾亂，血隨氣逆，是即薄厥之屬” 이라 한 것은 그가 神志異常의 증을 驚에 의한 肝陽의 동요로 해석한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과도한 思慮 내지 憂의 감정 역시 心脾를 손상시키면서 肝病을 유발할 수 있는데, 唐代의 王冰이 『素問玉機眞藏論』의 “憂則心氣乘矣”란 부분에 대한 주해에서 “憂則肝氣移于脾，肝氣不守，故心氣乘矣”라고 하였듯이 憂의 감정은 心, 肝, 脾의 병변을 일으킬 수 있다. 왕태림은 이를 기초로 과도한 思慮 및 憂의 감정이 肝氣鬱結을 유발하는 동시에 또한 心脾의 營氣를 손상시킴으로써 營氣와 津液의 耗損에 의한 肝風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나아가 鬱結된 肝氣가 火로 化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月經不調에 대한 한 의안을 보면, “內熱夜甚，經事兩月不來，脈沈而數” 한 병증에 대해 “憂愁抑鬱，耗損心脾之營，而肝木僭越，胸中氣塞……熱伏營血之中” 이라 하였는데, 이는 곧 月經不調의 증을 憂의 감정이 肝氣의 鬱結을 초래한 경우로 이해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왕태림은 肝病을 유발하는 內傷의 요인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그 內傷에 의한 肝病 역시 그 병기는 결국 모두 肝氣, 肝風, 肝火의 틀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왕태림은 痰飲과 瘀血 역시 肝의 疏泄기능에 영향을 주어 肝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병인으로 생각하였다.

2) 肝病의 三綱

왕태림은 肝病의 복잡한 病機를 肝氣, 肝火, 肝風의 셋으로 요약하였다. 발병의 단계는 처음에 氣鬱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火로 化하며, 그 상태가 盛해지면 風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肝의 氣가 鬱하여 舒暢하

지 못한 상태가 ‘肝氣’ 이고, 氣가 鬱하여 火로 化한 상태가 ‘肝火’ 이며, 肝陽이 제어되지 못하고 상승해 버린 상태가 ‘肝風’ 이다. 그 임상적인 증상들은 매우 복잡다변한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병인은 역시 肝氣의 疏泄기능이 문제를 일으켜 肝氣가 鬱結된 것이다. 즉 일단 肝의 疏泄기능이 평형을 잃으면 肝의 經氣가 不利해지면서 肝經이 지나는 부위에 脹悶疼痛이 발생하고 그 영향이 다른 臟腑에도 과급되는데, 이에 대해 왕태림은 “侮脾乘胃, 衝心犯肺, 挾寒扶痰, 本虛標實, 種種不同.” 이라 하였다.

肝風의 증에 대해서는 “雖多上冒巔頂, 亦能旁走四肢. 上冒者, 陽亢居多. 旁走者, 血虛爲多. 然內風多從火出, 氣有餘便是火.” 라 하였는데, 그 病性を 本虛標實의 증으로 보았다. 여기에서 本虛란 肝腎의 精血이 虧虛한 것을 말하고, 標實이란 肝陽上亢의 상태를 말한 것이다. 그리고 肝火의 증에 대해서는 “肝火燔灼, 游行于三焦, 一身上下內外皆能爲病, 難以枚舉. 如目紅腫赤, 瘵厥狂躁, 淋秘瘡瘍, 善飢煩渴, 嘔吐不寐, 上下血溢皆是.” 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肝火의 증은 그 증후가 매우 복잡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肝氣, 肝風, 肝火의 세 증을 요약해 보면 결국은 虛火, 實火, 鬱火의 개념으로 요약된다고 볼 수 있다.

2. 肝病의 治法

왕태림은 肝病을 三綱의 개념을 통해 論治하는 데 있어 肝氣를 肝病의 시작으로 보았다. 그는 肝氣의 병증을 다스리는 데 있어 氣機의 舒暢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肝氣自鬱于本經, 兩肋氣脹或痛者, 宜疏肝, 香附, 鬱金, 蘇梗, 青皮之屬” 이라 하여 疏肝解鬱을 肝氣의 기본적인 치법으로 하였다. 또한 그는 寒熱 등의 차이에 따라 약물을 가감하였는데, 寒이 있으면 吳茱萸를 가하고 熱이 있으면 丹皮, 山梔子를 가하였으며, 痰이 있으면 半夏, 茯苓을 가하였다. 만약 병이 오래 되어 이미 營氣의 소통이 막히고 瘀血 등이 絡脈에 저체되어 있는 상태로 疏肝의 치법이 듣지 않는다면 疏肝通絡法을 쓰며, 여기에는 旋覆花, 當歸鬚, 桃仁, 澤蘭葉 등의 약제가 사용된다. 또한 肝氣가 鬱結된 것이 오래 되었거나 辛散한 성질의 약물을 과용하면 陰血이 손상될 수 있는데, 陰血이 손상되면 이를 따라 肝氣도 더욱 鬱結되어 처음에는 實證이었던 것이 虛證으로 바뀌게 된다. 肝은 본래 그 體는 柔하고 그 用은 剛한 것이므로 치법에 있어서도 柔肝의 법을 쓰는 것이 좋으며, 이를 위해 當歸, 梔子, 柏子仁, 牛膝 등의 약제를 쓸 수 있다. 여기에 熱을 兼하였으면 天門冬, 生地黃을 가하고 寒을 兼하였으면 肉蓯蓉, 肉桂를 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肝氣의 병증은 肝의 병변 외에도 “侮脾乘胃, 衝心犯肺” 등의 병기에 따라 다른 臟腑에도 그 영향이 미치므로 그 論治에 있어 병정을 잘 고려해야 한다.

肝風은 肝陽의 上亢에서 비롯되는데, 肝陽의 上亢은 본래 肝陰의 虧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즉 肝陰의 虧損이란 肝의 體가 부족한 것이며, 體가 부족하면 用이 有餘해지면서 肝氣, 肝火, 肝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熄風和陽의 치법은 곧 涼肝의 치법으로서 주로 肝風의 초기에 肝陽이 亢盛하나 陰血은 아직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사용하며, 羚羊角, 丹皮, 菊花, 鈞鉤藤, 石決明, 白蒺藜 등의 약을 사용한다. 만약 涼肝의 치법이 듣지 않으면 肝陽이 과도하게 亢盛하면서 肝陰이 이미 손상된 것으로 보고 熄風潛陽의 치법을 쓰며, 牡蠣, 生地黃, 女貞子, 玄參, 白芍藥, 菊花, 阿膠 등의 약을 사용한다. 또한 肝風이 四肢에까지 미쳐 四肢의 麻木이나 刺痛이 있는 경우에는 養血熄風, 舒筋通絡의 치법을 쓰는데, 이를 두고 “治風先治血, 血行風自滅”의 이치라 하였으며 生地黃, 何首烏, 梔子, 當歸身, 牛膝, 天麻 등의 약으로 肝血을 자양한다. 이와 같이 肝風에 대한 치법은 이상의 涼肝熱, 滋肝陰, 養肝血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肝火의 증은 임상에서 그 증상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肝火가 상부로 衝逆하면 目赤腫紅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아래로 腎陽 및 膀胱을 상하면 淋閉의 증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肝火에는 實火, 虛火, 鬱火의 구별이 있으므로 치료에 있어 虛實에 대한 補瀉와 함께 겸하여 外散의 치법을 쓸 수 있다. 實火에 대한 치료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肝火가 상부에서 燔灼할 경우 清肝의 치법을 쓰면서 羚羊角, 丹皮, 黑梔子, 黃芩, 竹葉, 連翹, 夏枯草 등을 쓴다. 虛火의 경우에는 腎水가 虧損된 상태에서 肝火가 盛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乙癸同源의 이치에 따라 腎水의 부족이 肝陰의 부족을 초래하여 결국 虛火가 上炎함에 이른 것으로서, 六味地黃丸이나 大補陰丸 등을 써서 肝의 母인 腎을 補하도록 한다. 鬱火의 경우는 鬱怒 등의 감정변화에 의해 鬱結된 肝氣가 결국 化火한 것으로서, 煩熱, 脇痛, 脹滿, 動血 등의 증에 대해 升散之劑가 듣지 않는 경우 化肝의 치법을 쓸 수 있는데, 이는 理氣를 주로 하는 가운데 苦寒酸涼의性を 지닌 약들로 肝經의 鬱火를 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왕태림은 張景岳의 化肝煎을 잘 활용하였다. 그 밖에 왕태림은 溫肝法을 통해 肝火를 다스리기도 하였는데, 이는 下焦의 陽이 虛함으로 인한 龍雷之火의 상승을 다스리는 것으로서 肉桂, 吳茱萸, 蜀椒 등의 약을 쓰며 이른바 熱因熱用의 從治의 치법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으로 왕태림은 肝病을 다스리는 데 있어 臟腑

들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특히 脾胃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에 따라 培土泄木, 培土生金, 培土寧風, 暖土御風, 培土舒鬱 등의 구체적인 치법을 제시하였다.

첫째 培土泄木의 치법은 脾弱肝強의 증에 적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왕태림은 『西溪書屋夜話錄』에서 “肝氣乘脾, 脘腹脹滿, 六君子湯加吳茱萸白芍木香, 卽培土泄木法.” 이라 하였으며, 약으로는 炙甘草, 防風根, 砂仁, 陳皮, 白朮, 炒神麩, 茯苓, 炮薑, 白芍藥 등을 많이 사용하였다.

培土生金の 치법은 脾肺가 虛한 상태에서 肝火가 動하는 경우를 다스리는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개 咳嗽, 吐血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에 대해 왕태림은 “此怒動肝火, 肺失清肅, 所謂金破不鳴, 宜培土生金, 稍佐降火” 라고 하였으며, 沙蔘, 皓杏仁, 白扁豆, 元參, 茯苓, 桔梗, 薏苡仁, 蟬衣, 川貝母, 玉竹, 白蜜, 豬板油 등의 약을 많이 사용하였다.

培土寧風의 치법에 대해서는 “肝風上逆, 中虛納少, 宜潛陽明, 泄厥陰, 如人蔘, 甘草, 麥冬, 白芍, 甘菊, 玉竹, 培土寧風, 亦卽緩肝法也” 라 하였는데, 心腎이 不交하고 肝과 脾가 모두 虛한 상태에서 內風이 逆上하는 증에 대해 党參, 當歸身, 白芍藥, 白朮, 茯苓, 遠志, 酸棗仁, 沙苑子 등의 약을 써서 培土를 통해 肝風을 平하게 하는 것이다.

暖土御風의 치법은 특히 陽虛로 인한 風虛眩暈의 증에 대해 化痰, 滋肝腎의 법이 효과가 없을 경우에 쓸 수 있다고 하였는데, “暖土而御寒風, 如『金匱』『近效』白朮附子湯, 治風虛頭重眩苦極, 不知食味, 是暖土以御寒風之法, 此非治肝, 實補中也.” 라 하였듯이 中土를 溫補함을 통해 肝風을 다스리는 것이다.

培土舒鬱의 치법은 思慮의 과도로 인한 憂鬱로 肝脾가 손상된 경우를 다스리는 것으로서, 疏肝을 치료의 요체로 하면서 아울러 中土를 보하여 그 本을 공고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왕태림은 四七湯에 二陳湯을 합하여 疏肝과 함께 降氣化痰시킨 이후 다시 理中湯에 丁香, 木香, 蔻仁 등을 가하여 쓰는 등의 처방을 많이 사용하였다.

3. 왕태림의 肝病論治의 학술적 淵源

왕태림이 肝病에 대한 三綱의 개념을 세우면서 그 치법을 다양하게 발전시켰던 것은 『內經』, 『金匱要略』 아래의 諸家の 학술사상을 융합한 것과 함께 특히 葉天士의 영향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이하 왕태림의 肝病논치의 학술적 연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왕태림은 『內經』의 학술사상을 근본으로 하고 또한

仲景의 뒤를 이어 經方으로 병을 다스리는 것에 뛰어났다. 예를 들어 그는 肝氣有餘, 肝血不足의 한 병례에 대해 “凡藏邪, 惟虛者受之, 而實者不受, 惟實者能傳, 而虛則不傳, 仲景云, 肝病實脾, 治肝邪之盛也, 『內經』云, 肝病緩中, 治肝體之虛也.” 라고 하였는데, 이는 『內經』의 經旨와 아울러 『金匱要略』에서 말한 ‘治肝實脾’의 大法를 따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 병례에 대해 왕태림은 當歸, 白芍藥, 枸杞子, 沙苑子를 써서 肝血을 자양하고 靑皮, 陳皮, 香附子, 金鈴子를 써서 肝氣를 소통시켰으며 白朮, 茯苓, 砂仁으로 建脾의 효능을 발휘하였는데, 그 用藥의 묘가 仲景의 뜻에 잘 부합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는 한 병자의 嘔吐泄瀉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泄爲脾病, 嘔爲胃病, 脾胃屬土居中, 而司升降. 脾宜升, 不升則泄, 胃宜降, 不降則嘔, 土衰木橫, 木橫而土益衰” 라 하고 그 치법에 있어 “古人治肝, 當先實脾, 況效土弱, 尤當先補其中, 稍佐平肝可也” 라 하여 ‘治肝實脾’의 古法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痰火의 증을 다스린 한 예를 보면, “心境沈悶, 意願不遂, 近因患瘧, 多飲燒酒, 酒酣之後, 如醉如狂, 語言妄亂, 及今二日, 診脈小弦滑沈, 舌苔薄白, 小水短赤, 大便不通, 渴欲飲冷, 昏昏默默, 不知病之所的” 한 경우의 병기에 대해 “因思瘧必有痰, 酒能助火, 痰火內擾, 神明不安, 此少陽陽明同病, 而連及厥陰也, 少陽爲進出之樞, 陽明爲藏邪之藪, 今邪并陽明, 彌漫心包, 故發狂而又昏昏默默也.” 라 하면서 이에 대해 仲景의 柴胡加龍骨牡蠣湯을 응용한 처방을 사용하였다. 그 처방을 구성하는 약물들의 효능을 살펴보면, 柴胡와 黃芩은 疏肝, 清肝火의 효능이 있고 茯苓, 甘草은 寧心安神의 효능을 발휘하며, 龍骨과 牡蠣은 重鎮安神, 大黃은 清熱瀉火, 鉛丹은 墜痰鎮驚, 菖蒲, 半夏, 竹瀝, 薑汁은 祛痰의 효능이 있다. 본 처방은 仲景의 원방에서 桂枝를 빼고 기타 필요한 약물을 가미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왕태림이 仲景의 처방을 운용하는 데 매우 뛰어났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왕태림은 『內經』, 『金匱要略』과 같은 고전 의서의 학술사상을 계승함과 동시에 역대의 많은 저명 의가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특히 葉天士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다. 왕태림이 肝病의 論治에 있어 큰 틀로 삼은 肝氣, 肝風, 肝火의 三綱의 개념이나 肝病에 대한 여러 치법은 사실 葉天士의 영향을 받은 면이 매우 컸던 것이다. 왕태림은 『西溪書屋夜話錄』의 첫머리에서 “肝氣, 肝風, 肝火, 三者同出異名” 이라 하였는데, 그가 “內風多從火出, 氣有餘便是火” 라고 하였듯이 肝氣, 肝風, 肝火의 증은 모두 足厥陰肝의 병증으로서 병인 면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한편으로 그 각각은 肝病의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세 부

류의 서로 다른 단계를 의미함을 말한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肝病에 대해 肝氣, 肝風, 肝火의 개념으로 증을 분류한 것은 사실 왕태림보다 약간 앞선 시기의 林佩琴²⁾이라 할 수 있다. 즉 肝氣, 肝火, 肝風의 분류 개념은 林佩琴이 『類證治裁』에서 처음 제기한 것이었는데, 다만 그는 그 개념을 제시하면서 肝火, 肝風의 내용을 肝氣의 편에 함께 두었고 또한 그 각각이 ‘同出異名’이라는 뜻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를 통해 볼 때 林佩琴은 그 개념적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으며, 왕태림 역시 그의 저작에서 林佩琴의 관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가 林佩琴의 영향을 그다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葉天士의 경우는 이와 다른데, 왕태림의 저작에는 그가 葉天士로부터 여러 면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肝病에 대해 葉天士는 『臨證指南醫案』에서 이를 肝風, 肝鬱, 肝火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葉天士의 문인인 邵新甫는 『臨證指南醫案肝火』의 의안들에 대한 按語에서 “古人雖分肝風肝氣肝火之殊, 其實是同一源”이라 하였는데³⁾, 이로부터 “肝氣肝風肝火, 同源異名”의 설이 葉天士의 문인인 邵新甫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왕태림은 葉天士의 학술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肝病의 논치에 있어서도 그의 영향으로 三綱의 틀을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

그 뿐 아니라 肝病에 대한 왕태림의 치법 역시 葉天士의 영향을 받은 면이 컸다. 예를 들어 疏肝通絡法의 경우, 이에 대해 왕태림은 『西溪書屋夜話錄』에서 “如疏肝不應, 營氣痹室, 絡脈瘀阻, 宜兼通血絡, 如旋覆, 新絳, 歸鬚, 桃仁, 澤蘭葉等.”이라 하였는데, 肝氣鬱結이 있는 환자에게 疏肝理氣法이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 그 환자는 肝氣鬱結과 더불어 營氣痹室, 絡脈瘀阻 등의 증상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血絡을 소통시키는 치법을 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치법은 본래 仲

景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서, 仲景의 旋覆花湯은 肝失疏泄, 氣機鬱滯, 血行不暢, 絡脈瘀滯로 인한 肝着證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이후 葉天士는 仲景의 사상을 기초로 “初病氣結在經, 久病血傷入絡”의 이론을 제기함과 아울러 旋覆花湯을 기초로 하여 辛潤通絡法을 창안하였는데, 旋覆花, 新絳, 青葱管, 歸尾, 桃仁, 澤蘭葉 등의 약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었다. 『臨證指南醫案脇痛』의 한 의안을 보면 “初起形寒寒熱, 漸及脇肋, 脘痛, 進食痛加, 大便燥結, 久病已入血絡, 兼之神怯瘦損, 辛香剛燥, 決不可用.”이라 하면서 旋覆花, 新絳, 青葱管, 桃仁, 當歸鬚, 柏子仁 등의 약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用藥이 왕태림의 疏肝通絡法의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볼 때 왕태림의 疏肝通絡法이 葉天士의 辛潤通絡法의 영향을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泄肝和胃法의 경우, 이에 대해 왕태림은 『西溪書屋夜話錄』에서 “肝氣乘胃, 脘痛嘔酸, 二陳加左金丸, 或白蔻金鈴子, 卽泄肝和胃之法也.”라고 하였는데, 葉天士는 肝氣犯胃의 증에 대해 “泄厥陰以舒其用, 和陽明以利其腑”라 하면서 苦辛通降法을 많이 사용하였다. 泄肝에는 左金丸과 金鈴子散을 주로 상용하였고, 和胃에는 二陳湯(去甘草)을 상용하였다. 『臨證指南醫案嘔吐』의 한 의안을 보면 “咽阻, 吞酸痞脹, 食入吐蛔, 此肝陽犯胃, 用苦辛泄降.”이라 하면서 吳茱萸, 川楝子, 杏仁, 茯苓, 厚朴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왕태림이 泄肝和胃의 치법에서 사용한 약물들과 기본적으로 같은 것이다. 그 밖에 왕태림의 柔肝法, 養肝法, 緩肝法, 熄風潛陽法, 清肝法 등의 경우도 모두 葉天士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왕태림은 肝病의 논치에 있어 葉天士의 영향을 많이 받은 한편으로 그를 더 한층 발전시킨 면도 많았다. 예를 들어 肝風의 증의 경우 葉天士는 그 병기에 대해 “精血衰耗, 水不涵木, 木少滋榮, 故肝陽偏亢, 內風時起”라 하면서 ‘肝陽化風’의 설을 제기하였는데, 왕태림은 이를 “上冒者, 陽亢爲主, 旁走者, 血虛爲多”라고 귀납하였다. 임상에서 볼 때 肝風의 초기에는 陽亢이 주가 되고 陰虛는 잘 나타나지 않으며, 眩暈頭痛, 耳鳴目赤, 急躁易怒와 함께 腰膝酸軟이 나타나는 경우는 ‘肝陽上亢’의 증이다. 그리고 증이 더욱 虛證에 가까워지고 陽亢에 의한 上逆이 있는 경우에는 肢體의 麻木과 震顫, 眩暈 등이 나타나며, 심하면 突然昏倒, 不省人事의 증상과 함께 中風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이는 ‘肝陽化風’의 증이라 할 수 있다. ‘肝陽上亢’과 ‘肝陽化風’의 차이는 陽亢 및 陰虛의 輕重緩急에 있는데, 왕태림 이전의 의가들은 모두 두 증을 肝風의 증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나 왕태림은 肝風의 초기에는 熄風和陽의 법을 쓰되 만약 그 치법이 듣지 않으면 本虛標實의 경우 熄風潛

2) 林佩琴(1722-1839)은 清代 丹陽人으로 字는 雲和이고 號는 羲桐이다. 그는 醫를 業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儒醫로서 의료경험이 풍부하였으며, 만년에 그의 의안들을 정리하여 이를 중심으로 『類證治裁』를 저술하였다.

3) 『臨證指南醫案』은 葉天士의 의안을 그 문인들이 정리한 것으로서, 華岫雲에 의해 일차적으로 정리된 후 鄒九, 邵新甫, 華玉堂 등의 校勘을 거쳐 1764년 편집이 끝나고 1766년에 간행되었다. 邵新甫는 그 卷六의 ‘肝火’의 의안들 뒷부분에 자신의 按語를 덧붙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肝者將軍之官, 相火內寄, 得真水以涵濡, 真氣以制伏, 木火遂生生之機, 本無是症之名也. 蓋因情志不舒則生鬱, 言語不投則生嗔, 謀慮過度則自竭, 斯罷極之本, 從中變化, 攻衝激烈, 升之不熄爲風陽, 抑而不透爲鬱氣, 脘脇脹悶, 眩暈猝厥, 嘔逆淋閉, 狂躁見紅等病, 由是來矣. 古人雖分肝風肝氣肝火之殊, 其實是同一源. 若過鬱者宜辛宜涼, 乘勢達之爲妥. 過升者宜柔宜降, 緩其旋擾爲先. 自竭者全屬乎虛, 當培其子母之臟. 至于犯上海中乘下諸果, 散見各門, 可考.”

陽의 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로부터 肝陽上亢의 증이 비로소 肝風의 틀로부터 분화되게 되었다. 이는 肝病의 논치가 왕태림에 이르러 매우 정세해진 것을 보여 주는 좋은 예라 할 것이다.

Ⅲ. 결론

왕태림은 고전의서 및 葉天士 등 저명의학자들의 학술사상을 바탕으로 肝病에 대한 論治를 다양하게 발전시켰다. 먼저 肝病의 병인을 논함에 있어 왕태림이 外感六淫의 邪에 의한 肝病을 설명한 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는데, 첫째 風, 暑, 燥의 邪氣에 의한 肝病은 肝風을 위주로 하고, 둘째 火熱의 邪는 肝火로 발할 수 있고 또한 肝風을 생성할 수도 있으며, 셋째 寒, 濕의 邪는 肝氣의 凝滯를 일으킨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怒, 驚, 悲 등의 감정변화에 따른 內傷의 병기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혔는데, 內傷에 의한 肝病 역시 그 병기가 결국 모두 肝氣, 肝風, 肝火의 틀 안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도 왕태림은 痰飲과 瘀血 역시 肝의 疏泄기능에 영향을 주어 肝病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병인으로 생각하였다.

이와 같이 왕태림은 肝病의 복잡한 病機를 肝氣, 肝火, 肝風의 셋으로 요약하였으며, 발병의 단계는 처음에 氣鬱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火로 化하며, 그 상태가 盛해지면 風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즉 肝의 氣가 鬱하여 舒暢하지 못한 상태가 ‘肝氣’ 이고, 氣가 鬱하여 火로 化한 상태가 ‘肝火’ 이며, 肝陽이 제어되지 못하고 상승해 버린 상태가 ‘肝風’ 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병증들을 다스리기 위해 그는 疏肝理氣法, 疏肝通絡法, 緩肝法, 泄肝和胃法, 熄風和陽法, 熄風潛陽法, 培土寧風法, 清肝法, 溫肝法 등의 다양한 치법들을 발전시켰다.

한편 왕태림이 肝病의 論治에 있어 큰 틀로 삼은 肝氣, 肝風, 肝火의 三綱의 개념이나 肝病에 대한 여러 치법은 사실 葉天士의 영향을 받은 면이 매우 컸다. 肝病에 대해 葉天士는 『臨證指南醫案』에서 이를 肝風, 肝鬱, 肝火의 세 부류로 구분하였으며, 또한 葉天士의 문인인 邵新甫는 『臨證指南醫案·肝火』의 한 의안에 대한 按語에서 “古人雖分肝風肝氣肝火之殊, 其實是同一源” 이라 하였는데, 이로부터 “肝氣肝風肝火, 同源異名” 의 설이 葉天士의 문인인 邵新甫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왕태림은 葉天士의 학술사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肝病의 論治에 있어서도 그의 영향으로 三綱의 틀을 중심에 두었던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裘吉生 編, 『王旭高臨證醫案(珍本醫書集成)』, 醫聖堂, 1994.
2. 李智, 「王旭高肝病證治舉隅」, 『實用中醫內科雜誌』10, 1996.
3. 易法銀, 胡方林, 「王旭高肝病論治特色」, 『上海中醫藥雜誌』37, 2003.
4. 葉桂, 『臨証指南醫案(醫案醫話醫論名著集成)』, 華夏出版社, 1997.
5. 張堅石, 「葉天士對王旭高學術思想的影響」, 『中醫文獻研究』1, 1990.
6. 胡方林, 「王旭高肝病論治溯源」, 『江蘇中醫』22, 2001.
7. 胡方林, 「王旭高論情志致肝病探析」, 『國醫論壇』17, 2002.
8. 胡方林, 劉仙菊, 「清代名醫王旭高肝病辨證特點」, 『湖南中醫藥導報』8, 2002.